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3년 농림수산물식품부 예산안
2013년 농수축산물 할당관세 운용안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2월 소비자동향지수

기획 정보

정밀농업의 추진 배경 및 국내외 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2013년 농림수산물식품부 예산안

※ 본 자료는 2013년 1월 2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13년 예산 및 기금 15조 4,118억 원 확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개요

- 농식품부 2013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5조 4,118억 원으로 '12년 대비 0.02% 소폭 증가
 - 시설 현대화 자금, 영농·어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증액된 점(4,316억 원)을 감안하면, '12년 대비 2.8% 증가
 - ※ ('13)15조 4,118억 원(예산) + 4,316(이차 보전 실행 시 융자금)
-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분야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반면, 수산업·어촌 분야, 식품산업 분야는 각각 전년대비 8.8%, 10.0% 증가

<2013년 농림수산물식품부 예산·기금>

단위: 억 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사 업 비	154,083	154,118	35	0.02
농업·농촌	127,210	126,098	△1,113	△0.9
- 농업체질강화	27,704	30,892	3,187	11.5
- 농가소득·경영안정	19,780	21,004	1,224	6.2
- 농촌개발·복지증진	16,097	16,673	576	3.6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2,547	35,189	2,642	8.1
- 농업생산기반	31,082	22,339	△8,742	△28.1
수산업·어촌	13,633	14,832	1,198	8.8
식품산업	6,881	7,567	687	10.0
기타	6,358	5,621	△737	△11.6

- 농촌진흥청(1조 687억 원), 산림청(1조 8,488억 원)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물식품 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8조 3,862억 원으로 '12년 대비 1.4%(2,539억 원) 증가

□ 주요 내용

- 한·미/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 확대**(2조 5,208억 원 → 3조 830, 중 223%)
 - 축산·원예·과수·양식 등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 FTA이행지원센터 기능 보강(10억 원 → 14), 소득보전·폐업지원 등 농어가 경영 안전망 지원 지속(980억 원 → 980).
- 농수산물의 **수급·물가안정** 예산 확대(1조 4,720억 원 → 1조 7,101, 중 16.2%)
 - 배추 등 노지채소 계약재배 및 산지 조직·규모화 예산 증액(5,856억 원 → 7,434)
 - 콩, 배추,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비축사업 확대 반영(5,593억 원 → 6,711)
- 가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1조 2,930억 원 → 1조 5,576, 중 20.5%)
- **국제 곡물가 급등** 등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확대(1조 8,813억 원 → 2조 241, 중 7.6%)
 -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 부담 완화, 국산 곡물의 생산 및 수요 활성화, 주요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및 비축 사업 확대
- **농어촌 복지 개선 및 지역 활성화 지원 강화**(1조 5,995억 원 → 1조 6,509, 중 3.2%)
- R&D, 종자·생명산업, 식품산업, 수산업 등 미래준비를 위한 투자 강화(2조 4,392 → 2조 6,668, 중 9.3%)
- 신규사업 확대: 30개, 5,112억 원 반영
 - 첨단온실신축(1,500억 원), 글로벌 K-Food 프로젝트(154), 수산자원 조사선건조(50) 등

주요 농정 이슈_2

2013년 농수축산물 할당관세 운용안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31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013년 농수축산물 할당관세 운용안 확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할당관세**: 가격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率)을 인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대통령령으로 운용)
- (목적)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농식품 원자재 수급의 원활화**
- (적용기간) 사료용 원료 및 농어업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는 2013.1.1 ~ 12.31일 까지 1년간(새끼뱀장어는 6.30일 까지 6개월), 기타 식품 가공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2013.1.1 ~ 6.30일 까지 6개월 간 운용할 계획
- **(적용품목) 사료용 원료(23), 농어업원자재(5), 가공 및 식품원료 등(13)**
 - ※ ('12) 65개 품목 → ('13) 41개 품목

□ 주요내용

- 기존 **사료용 원료(22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 영세율(zero)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겉보리에 대하여 추가로 영세율 적용
-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조제품(사료용), 뱀장어 새끼장어(0.3g초과 50g이하)를 할당관세(기본관세율 5% → 할당관세율 2%) 적용품목으로 추가
-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제분용 밀·식용유 및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
- **돼지고기·마늘·양파·대파·치즈 등 26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

<2013년 농수축산물 할당관세 운용안>

순번	구 분	품 목	기본 관세율	할당 관세율	한계수량 (ton)	적용기간	비 고
1	사료용 원료 (23)	유장분말	20	0	30,000	'13.1.1 ~ '13.12.31	
2		매니옥 칩	20	0	200,000	'13.1.1 ~ '13.12.31	
3		매니옥펠릿	7	0	900,000	'13.1.1 ~ '13.12.31	
4		겉보리	5	0	50,000	'13.1.1 ~ '13.12.31	할당관세율 (12.4% → 13.0%)
5		귀리	3	0	130,000	'13.1.1 ~ '13.12.31	
6		옥수수	3	0	9,000,000	'13.1.1 ~ '13.12.31	
		사료용 버섯재배용			10,000		
7		대두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3	0	1,000,000	'13.1.1 ~ '13.12.31	
8		목화씨(면실)	2	0	160,000	'13.1.1 ~ '13.12.31	
9		밀짚(버섯재배용)	8	4	10,000	'13.1.1 ~ '13.12.31	
10		알팔파	1	0	수입전량	'13.1.1 ~ '13.12.31	
11		사료용 뿌리채소류 (사료용 근채류)	20/5	0	600,000	'13.1.1 ~ '13.12.31	
		사료용 버섯재배용			60,000		
12		동식물성유지	5	2	50,000	'13.1.1 ~ '13.12.31	
13		유당	20	0	6,000	'13.1.1 ~ '13.12.31	
14		당밀	3	0	450,000	'13.1.1 ~ '13.12.31	
15		밀기울	2	0	350,000	'13.1.1 ~ '13.12.31	
16		비트펄프	5	2	170,000	'13.1.1 ~ '13.12.31	버섯재배용 용도 추가
		사료용 버섯재배용			30,000		
17		주정박	2	0	920,000	'13.1.1 ~ '13.12.31	
18		대두박	1.8	0	2,700,000	'13.1.1 ~ '13.12.31	
19		목화씨박 (면실박)	2	0	165,000	'13.1.1 ~ '13.12.31	버섯재배용 용도 추가
		사료용 버섯재배용			15,000		
20		아자박	2	0	200,000	'13.1.1 ~ '13.12.31	
21		팜박	2	0	200,000	'13.1.1 ~ '13.12.31	
22		목화씨껍질 (면실피)	5	2	110,000	'13.1.1 ~ '13.12.31	버섯재배용 용도 추가
		사료용 버섯재배용			15,000		
23		사료용조제품 (사료용 유조제품)	5	2	4,400	'13.1.1 ~ '13.12.31	'13년 신규

순번	구 분	품 목	기본 관세율	할당 관세율	한계수량 (ton)	적용기간	비 고
24	농어업 원자재 (5)	호밀(녹비용)	3	0	6,500	'13.1.1 ~ '13.12.31	
25		요소(비료/비료제조용)	2	0	650,000	'13.1.1 ~ '13.12.31	
26		농약완제품	8	4	5,000	'13.1.1 ~ '13.12.31	
27		농약원제	2	1	20,000	'13.1.1 ~ '13.12.31	
28		새끼뱀장어(종묘양식용)	5	3	수입전량	'13.1.1 ~ '13.6.30	'13년 신규
29		기타 장(소시지케이싱용)	27	18	250	'13.1.1 ~ '13.6.30	
30		매니옥칩(주정용)	20	5	163,000	'13.1.1 ~ '13.6.30	
31		밀(제분용)	1.8	0	1,000,000	'13.1.1 ~ '13.6.30	
32		맥주보리	30	8	25,000	'13.1.1 ~ '13.6.30	
33	가공 및 식품원료 등 (13)	옥수수(가공용)	3	0	1,250,000	'13.1.1 ~ '13.6.30	
34		맥아	30	8	130,000	'13.1.1 ~ '13.6.30	
35		유채	10	5	75,000	'13.1.1 ~ '13.6.30	
36		대두유	5	3	175,000	'13.1.1 ~ '13.6.30	
37		쌀겨기름	5	3	6,500	'13.1.1 ~ '13.6.30	
38		정제한 포도씨유	5	3	7,500	'13.1.1 ~ '13.6.30	
39		조주정	10	3	120,000kl	'13.1.1 ~ '13.6.30	
40		원당	3	0	수입전량	'12.7.1 ~ '13.6.30	
41		설탕	30	0	300,000	'12.7.1 ~ '13.6.30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2월 소비자동향지수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26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12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2월 중 99로 전월과 동일**

<구성지수의 기여도>

구 분	12.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심리지수 ¹⁾	104	105	101	100	99	99	98	99	99
(전기 대비 지수차) ²⁾	3.2	1.2	△4.3	△0.8	△0.7	△0.6	△0.3	1.0	△0.2
구 성									
현재생활형편	0.5	0.5	△0.4	△0.2	0.0	△0.2	0.0	0.2	△0.3
생활형편전망	0.6	0.4	△0.7	△0.4	△0.2	0.0	0.0	0.3	△0.2
가계수입전망	0.5	0.0	△1.1	0.0	△0.2	0.0	0.0	0.0	0.0
소비지출전망	0.5	△0.2	△0.7	0.0	0.2	△0.4	△0.2	0.2	0.0
현재경기판단	0.5	0.3	△0.5	△0.2	△0.3	△0.1	0.0	0.1	△0.1
향후경기전망	0.6	0.2	△0.9	0.0	△0.2	0.1	△0.1	0.2	0.4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합성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 전월대비 각각 2p, 1p 하락**
- **가계수입전망CSI와 소비지출전망CSI는 전월과 동일**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A)	12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7	90	88	87	87	86	86	87	85	(△2)
생활형편전망CSI	97	99	95	93	92	92	92	94	93	(△1)
가계수입전망CSI	99	99	95	95	94	94	94	94	94	(-)
소비지출전망CSI	110	109	106	106	107	105	104	105	105	(-)

1)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는 전월대비 1p 하락, 향후경기전망CSI는 전월대비 5p 상승**
- **취업기회전망CSI는 90으로 전월대비 6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는 134로 전월대비 1p 하락, 금리수준전망CSI는 97로 전월대비 1p 상승**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A)	12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77	81	74	71	67	66	66	67	66	(△1)
향후경기전망CSI	90	93	81	81	78	79	78	80	85	(+5)
취업기회전망CSI	92	94	88	87	84	87	85	84	90	(+6)
물가수준전망CSI	137	137	137	136	141	139	137	135	134	(△1)
금리수준전망CSI	115	115	107	105	96	97	90	96	97	(+1)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2%로 전월대비 0.1p 하락**
 - 구간별로는 **향후 물가가 1.5~3.0%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비중이 42.6%로 전월대비 7.5%p 증가한 반면, 3.0% 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비중은 55.9%로 7.6%p 감소**

<기대인플레이션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기획 정보

정밀농업의 추진 배경 및 국내외 동향

※ 본 자료는 다양한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동향분석실에서 작성한 것임.

□ 정밀농업의 정의

- 정밀농업이란 **비료, 농약, 물 등을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 요구량만큼만 사용**하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농업
 - 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농자재를 투입하고 생육을 관리해 **수확량을 극대화**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줄이는(환경오염을 보호)** 농법을 의미하며, 수지(收支)를 최적화하는 **지속농업을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 정밀농업의 개념 및 특징

- 정밀농업의 개념은 **농업생산에서 다목적 의사결정 체계를 정밀하게 관리**, 변량형 농법(variable rate agriculture)인 동시에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농자재를 처방(prescription farming)한다는 측면에서 **농업의 정보·전산화와 시스템화**를 내포
- 또한 위치별 특성에 맞는 관리(site-specific management)를 통하여 미래의 포장상태 및 수확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정밀농업은 **환경보전이라는 선진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개념
- 현대의 농업이 직면한 **고투입·다수확 농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자연친화적인 본래 특성을 반영한 영농기술
- 정밀농업은 **‘관찰(조사) → 처방(분석) → 농작업 → 결과분석’ 단계**로 이루어지며, 단계별 요소 기술들이 필요
- 또한 농산물의 증가와 동시에 환경에 대한 충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하나**임.
- 농경지를 구체화하여 위치 특성에 맞도록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농기계를 통해 노력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농기계도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기술도 포함**

- 지금처럼 논밭 전체에 농사에 필요한 자원을 무작위로 뿌리는 대신, 토양의 성질에 따라 **어디에 얼마만큼의 자원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기술이 핵심**

※ EC센서*로 분석된 정보는 컴퓨터 작업을 통해 전자지도 형태로 재구성돼 농경지별로 필요한 비료나 농약 등의 양이 산출됨.
※ 토양의 전지전도도(EC)를 이용해 토양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 휴대용 토양 EC센서를 이용하면 땅을 파지 않고도 성질을 5초 만에 분석

□ 정밀농업의 등장

- **1929년 일리노이 대학의 린슬리(Linsley)와 바우어(Bauer)**, 경작지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자재 투입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오늘날 **정밀농업의 탄생**을 예고
- 정밀농업의 출발은 논밭 내에 수분이나 양분, 토양의 성질, 수확량이 서로 다른 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시작됨.
- 비료, 농약, 물 등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관리하는 **현재 농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안**으로 부상
 -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우리나라 ha당 농약 사용량이 13.1kg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연평균(1990~2003년) 농약 사용량과 비교하면 1위로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0.60kg)의 20배 이상, 화학비료 사용량(1990~2003년)도 422kg/ha로 OECD 국가 중 5위
-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 토양조사 및 분석기법, 작물조사, 항공사진 분석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컴퓨터 프로세서가 개발되어 포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를 드러내기 시작
-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이란 명칭은 1997년 6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열린 국제농업회의에서 통일됨.
- 미국에서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였지만 1990년대 중반 **GPS의 상업화 이용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정밀농업 보급의 기폭제** 역할
- 농업에도 농산물 생산 - 유통 - 소비에 이르기까지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이 농업기술과 융합되면서 **감각농업이 과학농업으로 변화**됨.
 - 농업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농사가 **토양과 작물의 상태를 측정해 필요한 곳에 적당한 비료를 주는 정밀농업의 시대로 진화**

□ 정밀농업의 국내외 동향

1) 세계의 정밀농업 동향

- 선두주자인 미국에서는 현재 옥수수, 콩, 밀 등의 작목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이 보편화돼 있어 **정밀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의 비중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오렌지, 사과 등 **과일산업에도 적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
-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에 착수, 점차 농업현장에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목표와 시행방법이 매우 다양함.
 - **독일이나 덴마크 등에서는 정밀농업 인증사업이 실시**되는 등 정밀 농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됨.
-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미국식 정밀농업을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일본형 정밀농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수도작 중심으로 1997년부터 정밀농업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 1999년 일본 농림수산성은 정밀농업을 주테마로 한 「21세기형 농업 기계 등 긴급개발사업」을 시작
- 중국은 **1999년부터 정밀농업 계획**을 수립, 농업 경영 규모나 재배 작물이 비슷한 **미국의 정밀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추진
- 1994년 비료 변량살포기가 개발된 이후, 잡초가 있는 곳에만 제초제를 살포하는 스폿살포기나 자동방제기 등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추세
- 정밀농업을 통해 미국에서는 종전 대비 1ha당 15~17달러의 농자재 비용을 절감했고, 일본에서는 비료 사용이 13% 감소

2) 국내 정밀농업 동향

- 농촌진흥청에서는 2004년부터 위성탐사자료를 활용한 벼의 생육분석연구가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업토양정보 웹시스템 완성**

-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기초기술을 개발 중이며, 2010년 국내에서 개발된 EC센서, 생육센서 등의 보급이 미약하여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뒤쳐진 상황**임.
- 친환경농업의 하나인 **정밀농업이 미래 농업의 대안**인 것에는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없지만 우리나라 **정밀농업 실현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함.
 - 협소한 경지면적, 영세농 중심 구조,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 농업인의 환경친화적 경영 마인드 및 IT마인드 부족, 빈약한 국내 정밀농업 전문 연구인력 등
- 2009년부터 친환경농업관리실 토양에 대한 정밀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적지적작(適地適作)에 필요한 정보들을 농업인에게 제공

- ▲ ex1.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안성마춤 쌀 단지, 지역별 주요작물 재배지, 맞춤형 비료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분석 등 2010년 약 4,000여점의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
 - ▲ ex2. (평택시) 2006년부터 벼를 대상으로 정밀농업기술이 시범적으로 운영
 - ▲ ex3.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을 통해 강소농 육성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집적된 양분을 판단할 수 있어 비료량 절감, 품질향상 등 정밀농업 추진

□ 정밀농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 잡초만 찾아서 제초제를 뿌리는 동력분무기가 등장하는 등 **작물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무인의 소형 농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고, 이외에도 위성을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정밀화** 및 **정밀농업용 장비와 데이터의 표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09년, GRDC)
- 토양과 식물 생육상태를 분석한 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농약을 처방하는 개념인 정밀농업은 결국 **질소의 과학적 관리**이며, 벼농사 중심인 한국과 일본은 쌀의 안전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밀농업이 필요**함(일본, 교토대학 우메다 미키오 교수).
- 정밀농업은 기술이 아니라 **농업분야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미국에서 정밀농업이 시작됐지만 농장 규모가 훨씬 작은 아시아 국가들은 **처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미국, 미주리대 케네스 서더스 교수).

□ 정밀농업에 대한 전망

- 정밀농업 기술이 확립되면 농장관리의 저비용화, 자재투입의 효율화가 가능해져 **생산성 향상, 안정적인 식량 확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 보전**에 도움
-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투입비용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농업인 **정밀농업의 개념 인식 확산**이 필요하며, **산·관·학·연의 이해가 일치되는 새로운 농업기술임**을 인식
- **품질은 높이고 생산비는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의 하나이며, 정밀농업을 전면시행하지 않더라도 **관련기술의 개발이 우리 농업시스템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정밀농업은 하나의 특정 기술이나 개발된 기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작물생산을 위한 농업인 만큼 **농업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농업생산 여건들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환경에 적용 가능한 정밀농업 관련 기술 개발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정밀농업 활성화의 관건

※ 참고문헌

- 공감코리아_www.korea.kr
- 농촌진흥청_www.rda.go.kr
- 공감코리아_「10년 후를 준비하는 정밀농업 - 농촌진흥청 대표 리포트 RDA Interbang 제90호 발간」(2012.12.20)
- 농촌진흥청_농촌진흥일보「10년 후를 준비하는 정밀농업」(2012.12.20)
- 농촌진흥청_RDA Interbang(90호)「10년 후를 준비하는 정밀농업 - 환경과 식량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2012.12.12)
- 박덕렬_「정밀농업 도입의 경제적 분석」(2010)
- 경기일보 보도자료(2012.12.21)「첨단 과학적인 '정밀농업', 널리 보급시켜야」
- 경향신문 보도자료(2012.12.19)「'농사도 과학' 정밀농업이 대안이다」
- 아시아투데이 보도자료(2012.12.18)「10년 후를 준비하는 정밀농업」농촌진흥청 대표 리포트 RDA Interbang 제90호 발간」
- 뉴스타운 보도자료(2012.7.3)「안성농업의 미래 정밀농업으로부터」
- 아주경제 보도자료(2012.6.10)「우리 농업에 스마트 바람이 분다」
- 아시아투데이 보도자료(2010.12.8)「안성농업의 미래 정밀농업으로부터」
- 아주경제 보도자료(2010.12.7)「안성시, 안성농업의 미래 '정밀농업」
- 매일신문 보도자료(2008.12.12)「정밀농업을 준비하자 - ⑨한국형 정밀농업의 개발」
- 매일신문 보도자료(2008.12.9)「정밀농업을 준비하자 - ⑧국내 연구개발 현주소」
- 매일신문 보도자료(2008.11.18)「제3농업혁명 정밀농업을 준비하라 - ②농업을 살리는 과학」
- 매일신문 보도자료(2008.11.14)「제3농업혁명 정밀농업을 준비하라 - ①정밀농업이란?」
- 농민신문 보도자료(2009.2.16)「녹색성장시대의 초생력 정밀농업」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월 1일~4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2017년 재해보험 품목 93개로

- 농식품부, 2012.12.26일,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현행 62개인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93개로 확대, 가입률도 농작물과 양식은 50%, 가축은 60%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 제도개선(안)' 발표. 현재 보험가입률은 농작물 32.1%, 가축 54.5%, 양식 32.9%에 불과. 또한 **전문손해평가인도 2017년까지 1,000명 육성, 재해보험 인지도 65% → 80%까지 증대**

<농어업재해보험 개선 추진방안>

항목	현행	개선(목표)안
품목수	62개	93개(2017년)
자기부담비율	20~30%	15~20~30%
과수형 종합위험보장 방식 도입	일부 재해만 보장	사과·단감(2013년), 딸은감(2014년), 배·감귤(2015년)
척과피해	감수 과실의 5%만 인정	품목별 적정비를 분석해 개선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구분해서 가입	원예시설종합보험(가칭)으로 통합
가축재해보험 돼지·가금 잔존물 처리비용 특약 신설	자부담	잔존물 처리비용 보상
보험가입시 현지조사 절차	2단계	1단계
국가재보험 책임 범위	손해를 180% 이상	150%
손해평가인 인력 육성	체계적인 교육 부족 및 보상체계 미흡	전문인력 육성 및 자격증화
연구개발 활성화	손해평가 기술 개발 등 연구부족	재해보험 관련 연구 용역 연 1~2회 실시
농어업재해보험 기금	고갈 위기	FTA 피해보전 기금 등으로 추가 재원 확보
정책사업과의 연계	가입 제한 없음	각종 정책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의무화
보험료 국고 지원 상한선	없음	설정
지자체 보험료 지원	지자체마다 상이	보험료 지원 확대 유도하되 지역간 균형 있게
가입 수확량	전국 표준수확량	실제 수확량 반영
보험 부담 가입자 가입	제한 없음	제한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3)/ 농민신문(2013.1.1)

□ 안파에 이은 폭설, 연초부터 ‘농산물 피해’ 속출

- **한파에 이은 폭설로 업체류, 시설채소류 피해가 속출하여 출하차질, 가격 상승**으로 농민, 소비자 모두 ‘한숨’. 도매시장 농산물 반입량이 크게 감소해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특히 깻잎, 배추, 얼갈이 등 업체류와 시설 채소 생산 농가들은 하우스 붕괴, 가온 유류비 증가. 도매시장에서는 배추, 얼갈이, 깻잎, 취나물 등 업체류와 방울토마토, 풋고추, 오이 등 **시설 채소류 가격 상승**.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유통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29일 현재 과일, 채소류 12월 전체 반입량은 각각 2만9375톤, 11만158톤으로 11월 전체 반입량보다 무려 19%, 22% 감소. 이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출하량이 적은 것**.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보다 평균 도매가격이 오른 청과물은 전체 반입 품목 가운데 75% 이상 차지. 파슬리와 방울 토마토, 쪽파, 배추, 얼갈이 등은 도매가격이 11월 평균보다 2배 이상 상승, 50% 이상 상승한 품목도 18개 품목. 또한 깻잎을 비롯해 풋고추, 백다다기 오이, 감귤 하우스 등이 대표적으로 오른 품목으로 시설채소류의 가격 강세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2)

□ FTA로 페루산 포도 밀물...국내시장 위협

- 관세청에 따르면, ▲신선 포도의 수입이 대폭 증가. 특히 **FTA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수입이 시작된 페루산 포도물량 증가**. 페루산 포도는 2011년 8월 한-페루 FTA 발효로 기존 관세 45%가 2012년부터 27%로 절반 가까이 떨어져 (2011.12월) 240톤 → (2012.1월) 425톤 → (2012.11월) 464톤 기록하며 국내 진입 시작. **페루산 포도 관세는 (2013년) 18% → (2014년) 9% → (2015년 이후) 0%로 단계적으로 철폐**. 이와 같은 관세 인하의 효과로 2012년 페루산 포도 수입량은 800톤*을 넘을 것으로 예측. ▲**시장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시세도 약세**...2012년 10월 말까지 들어온 미국산 포도가 경기불황으로 제때 소진되지 못하고, 재고로 누적된 가운데 11월부터 페루산 포도 수입으로 수입포도 물동량이 증가해 가락시장의 12월 마지막 주 페루산 포도 8kg 평균가격 약 3만8,000원대로 수입이 시작됐던 11월 초 4만8,000원대보다는 1만 원 가량 떨어짐.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중순부터 칠레산 포도도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동절기 수입포도 시장은 물량 포화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동절기 수입과일 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산 과일 소비 위축**이 우려됨.
※ 11월 수입량 464톤과 유통업체의 12월 수입 추정물량 약 400톤을 합한 양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3)

□ 배추·무 전용 복합시설 건립

- 정부, 2012.12.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논의. ▲ **수급불안 품목인 배추·무의 출하조절을 위해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절임배추 생산시설을 갖춘 복합시설을 설치 확대**...관련 예산 (2012년) 71억 원 → (2013년) 127억 원 대폭 증대, ▲**생산자·소비자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등 농산물 직거래를 적극 장려...2013년 3월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맺고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협업하는 공동농업방식(CSA)을 확산

자료 : 농민신문(2013.1.1)

□ 사업자 선정·관리 투명에진다

- 농식품부, 농림수산업 사업자의 **선정·관리 투명성 제고**와 **지원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농림수산업실시규정(훈령) 개정 및 시행**(1.1일). 농림수산업의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농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 원(수산업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사업 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제출,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검토기간(10일→20일) 확대, ▲지원신청 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수산업 7천만 원 이상)...관계기관 직원 합동 현지 확인 또는 조사 실시, 농림수산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 매년 1회 농·수협 등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점검 실시. ▲지원금액 3천만 원 미만 시설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 관리대장 비치 토록 함과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시·군 및 시·도의 사업 신청기한도 조정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3.1.2)

□ 지자체 공급 농자재도 세금 안낼 듯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해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비용을 비롯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 추진. **농자재를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 과세 적용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그동안 지자체들은 상수원 관리지역 등의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비료 등 농기자재를 농업인 대신 구매해 제공하는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느라 별도의 부담으로 인해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대상은 다 같은 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구매주체(농업인, 농협, 국가나 지자체 등)에 따라 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져** 가격 차이가 나고,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관련기관의 판단도 서로 달라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 혼선 및 가산세 부과 문제** 발생. 결국 지자체가 농업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사실상 비료를 공급받는 자는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

자료 : 농민신문(2013.1.1)

□ 농수산물 시세조회, 스마트폰으로 가능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고객 맞춤형 농수산물 시세 조회 서비스**'를 지난해 12.31일 오픈. 이 서비스를 통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출하자는 **자신이 출하한 품목의 경락가격뿐 아니라 다른 지역 출하품 평균가격 등도 간편하게 조회**, 시간을 지정해 놓으면 해당 시간에 원하는 품목의 최저·최고·평균가격을 자동으로 조회 가능.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조만간 아이폰 용 앱도 개발해 서비스할 계획

자료 : 농민신문(2013.1.1)

연구 지원 정보

2011년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비중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지역소득 (잠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규모 및 증감률

- 2011년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1,243조 원으로 전년 보다 약 70조 원 증가(6.0%)**
- 시·도별 지역내총생산(명목)은 **서울이 284조 원으로 최고** 기록, 제주는 11조 원으로 최저 기록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전국의 47.1%로 전년의 47.8%보다 0.7%p 축소
- 시·도별 증감률은 울산, 충남, 전북 등은 전국 평균수준(6.0%) 이상, 반면에 경북, 인천, 서울 등은 평균수준 하회

<지역내총생산(당해년 가격)>

단위: 조 원, %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지역비중
전 국	1172.7	1242.9	6.0	100.0
서 울	271.6	283.7	4.4	22.8
부 산	59.5	62.7	5.3	5.0
대 구	35.6	37.6	5.4	3.0
인 천	56.9	59.3	4.3	4.8
광 주	25.1	26.6	5.7	2.1
대 전	26.4	28.0	6.0	2.3
울 산	59.2	69.1	16.8	5.6
경 기	232.4	243.0	4.6	19.6
강 원	28.8	30.3	5.1	2.4
충 북	36.2	38.5	6.3	3.1
충 남	76.4	84.9	11.2	6.8
전 북	34.6	38.1	9.9	3.1
전 남	58.8	62.6	6.5	5.0
경 북	78.3	81.0	3.4	6.5
경 남	82.3	86.5	5.0	7.0
제 주	10.5	11.1	6.3	0.9

□ 산업의 시·도별 비중

- 농림어업의 비중은 경북(14.5%) > 전남(14.4%) > 경남(12.6%)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전북(10.9% → 11.8%), 경남(12.2% → 12.6%), 부산(2.2% → 2.5%) 지역에서 비중 확대, 반면에 경기(9.7% → 9.1%), 충남(12.7% → 12.3%), 경북(14.9 → 14.5) 지역에서는 비중 감소
- 광업·제조업의 비중은 경기(22.5%) > 충남(12.4%) > 울산(11.8%) 등의 지역에서,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의 비중은 서울(33.0%) > 경기(18.7%) > 부산(6.1%)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산업의 시·도별 비중(당해년 가격)>

단위: %, %P

지 역	농 립 어 업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		
	2010년	2011년 ^P	증 감	2010년	2011년 ^P	증 감	2010년	2011년 ^P	증 감
서 울	1.8	1.7	-0.1	3.9	3.4	-0.5	32.8	33.0	0.1
부 산	2.2	2.5	0.3	3.3	3.2	-0.2	6.1	6.1	0.0
대 구	0.5	0.4	-0.1	2.2	2.2	0.0	3.6	3.6	0.0
인 천	0.8	0.8	-0.1	4.7	4.5	-0.2	5.0	5.0	0.0
광 주	0.8	0.9	0.1	2.1	2.0	0.0	2.3	2.3	0.0
대 전	0.1	0.1	0.0	1.3	1.3	0.0	2.9	2.9	0.0
울 산	0.5	0.5	0.0	10.2	11.8	1.6	1.8	1.8	0.0
경 기	9.7	9.1	-0.6	23.1	22.5	-0.6	18.9	18.7	-0.2
강 원	6.0	6.2	0.2	1.2	1.1	0.0	3.0	3.0	0.0
충 북	5.6	5.6	0.1	4.4	4.4	0.0	2.5	2.4	0.0
충 남	12.7	12.3	-0.5	11.7	12.4	0.7	3.9	3.9	0.0
전 북	10.9	11.8	0.9	2.9	3.0	0.1	2.8	2.9	0.1
전 남	14.7	14.4	-0.3	6.3	6.7	0.4	3.6	3.5	-0.1
경 북	14.9	14.5	-0.4	11.9	11.1	-0.8	4.4	4.4	-0.1
경 남	12.2	12.6	0.4	10.9	10.3	-0.6	5.3	5.3	0.0
제 주	6.6	6.5	-0.1	0.1	0.1	0.0	1.1	1.1	0.0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